



環境協定

현재 남북한동질성으로서의 환경협정의 필요성이 동·서독간 「환경협정」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제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환경협정은 하나의 지구보전이라는 광역에 걸치는 문제와 동질성이 이질화 되어 고착되어가는 환경문제를 하나로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공기, 물, 빛과 자연경관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환경요건들이다. 즉,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자유재이다. 이러한 환경요소를 정치적이전에 논의하여 동·서독 환경협정으로까지 끌어 올린 동·서독 환경관계관들의 동·서독 환경동질성으로서의 비전은 크게 돋보인다.

1987년 9월 8일 본에서 서독 수상과 동독수상 호네커가 참석한 자리에서 서독대표 Prof. Dr. Klaus Topfer와 동독대표 Dr. Hans Reichelt가 서명한 동·서독간 환경협정(Verembarung)이 바로 그 협정이다.

이러한 환경협정은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한 동질성 회복으로 환경문제를 공동노력으로 접근하려는 시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선 환경협정의 주내용을 살펴보면 대강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흐른다.

동·서독 환경협정은 서독정부(독일연방공화국)와 동독정부(독일민주공화국)간의 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서로의 역할에 대한 협정이다. 이러한 협정이 87년 9월 8일에 정상회담에서 서명되기까지는 15년이란 긴 세월의 끈질긴 접촉과 시도가 있었다.

「1972년 12월 21일 서독과 동독간의 관계에 대한 협정에 기초를 두고 환경보호구역에서의 공동노력으로 연구개발 및 장려하는일, 유럽에서의 공동활동과 안전에 대한 회의결과, 1979년 겐프에서와 1985년 헬싱키에서의 환경의 개선과 보호를 위한 약정 및 1984년 뮌헨 환경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환경보호에 효과있게 기여하고 유럽에서의 평화의 정착과 긴장 완화를 위하여 공헌할 것을 자각하기 위해 협약했다(배경설

安基熙 / 本協會 開發部長 · 行博

서독이 동독보다 경제성장면에서 월등히 우수하고, 환경기술 또한 동독보다 축적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서독의 경제와 기술능력은 필연적으로 동독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명에서)」고 서술하고 있다.

동 협정 제 1 조는 「양측은 환경보호에 대한 선택된 관심사에 공동노력을 추진한다. 그 노력은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환경보호 및 환경보전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을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동·서독 환경문제는 이제 통일 독일 환경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공동노력의 관심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백히 명문화하고 있다.(제 2 조)

-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삭감을 위한 기술 및 대책
- 산림피해의 원인과 피해감소를 위한 대책
- 폐기물 발생량 감소, 재이용 및 무해화 처리
- 자연보호구역에서의 경험과 대책
- 수자원 보호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술, 경험 대책

등을 상호 공동관심사로 규정한 것은 동·서독을 하나의 환경으로 대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 전문과학적인 준비, 전문가의 교환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연구결과와 교환등이 배려되고 있다.

동·서독 환경보전대책은 서독의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정청과 동독의 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청간의 공동사업계획을 작성한다. 이러한 사업계획에는 특히 정보 및 경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제언 즉, 수시로 준비기관과 준비된 참가자의 수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3 조)

이 협정의 집행을 위한 의사결의는 서독과 동독의 환경관리청의 공동결의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제 4 조) 양측의 대기·수질·폐기물 및

자연보호에 대한 공동노력의 결과는 서로의 협의하에 제 3 자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보호된 정보의 이용을 위해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제 5 조)

위와같은 환경협정이 크게 돋보이는 점은 서독과 동독간에 계속적인 공동노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노력의 핵심은 환경보전과 보호를 위한 가능한 한 정책과 대책의 공동 토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서독의 하나의 통일로 향한 목표지향적인 환경정책은 현존의 정책과 사회구조에 결합되어 좌우되지 않는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위한 서로의 책임의식 속에서 역사적인 도전에 상응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기정화의 범위, 수자원보호, 폐기물 처리, 산림피해의 문제점이 중요시 되고 있는 과업범위이다. 그리고 서독이 동독보다 경제성장면에서 월등히 우수하고, 환경기술 또한 동독보다 축적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서독의 경제와 기술능력은 필연적으로 동독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즉, 폐수와 폐기물에 의한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부하와 환경기술은 서독에서 개발된 고도의 기술축적이 동독에서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외에도 자연환경자원의 한계인식을 고려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합리적인 사용으로 현재인과 후세대를 위하여 환경의 급부능력을 유지·보전하는데 공동관심사로 대응하고 있다. 수시로 동·서독간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정과 대책을 위하여 공동으로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기로 하고 있다.

특히 유럽 핵심부에 있는 독일내의 두국가는

남북한 최고 환경회담 및 환경협정을 위한 남북한 교수 및 대학생 환경학술 교류를 제언하는 바이다.

하나의 환경을 위한 공동운명체로 결합되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서독은 동·서독 환경협정을 체결한 후 소련과도 협정을 시도하고 있다. 즉 서독 환경부는 소련의 연방과학기술 개발 및 투자위원회 의장을 본으로 초청하여 환경문제의 공동관심사와 환경협정의 조인 및 환경협약을 위한 정치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서독과 동독간의 환경협정에 의해 하나의 통일된 독일 환경보전정책의 공동노력으로 정화되어가는 「엘라강」과 「엘베강」을 우리는 크게 부러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서독이 동독에 관세없이 싼값에 물건을 팔아 먹고 남은 폐기물의 자원화와 매립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관심사와 제지공장의 폐수문제, 공동자연보호구역내의 정비에 대한 공동관심사로 대응하는 동·서독간의 환경협정은 결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지! 현재 다각적으로 남북한 교류문제가 시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와같은 환경협정의 내용이 주는 교훈은 남북한 환경협정의 기틀을 제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상호교류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정치회담과 체육교류가 결코 아니다. 이러한 교류는 40여년간 단절된 벽을 허무는데 너무나 굳어져 있다. 적십자 회담도 중요하고, 상호방문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상호간 감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 필자는 비장한 마음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공동환경학술조사를 제의하고자한다. 우선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 이러한 환경생태조사 대상은 비정치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40여년간 인위적으로 단절된 환경에서 다른 지역의 동종의 생태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궁

금한 것은 우리국민 또는 세계의 생태학자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조사결과이기 때문이다. 판문점 대학생회담도 좋고 비무장지대에서의 공동운동장건설도 좋지만 이보다 앞서 교수와 대학생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마음껏 웃으면서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 연구한다는 것은 분단 40여년 이후 최대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환경생태조사는 비정치적이라서 상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뿐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 보고서는 양쪽 국민들의 지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도 남을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보고서는 냉정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체계화 함으로써 남북한 환경 동질성 회복에 큰 동인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한 학술교류의 시도와 기술 축적은 남북한 환경협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큰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번 더 남북한 최고 환경회담 및 환경협정을 위한 남북한 교수 및 대학생 환경학술 교류를 제언하는 바이다. *

엄마아빠 환경보전 아들딸의 복된내일